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해설

빠른 답지

43445

32341

25532

53451

1. 윤리학의 분류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나'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선지 분석]

- ① 도덕적 관습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②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③ 도덕적 개념에 내포된 논리적인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④ 윤리적 행위를 위한 도덕규범의 정립을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⑤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력해야 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2. 동양 윤리

[제시문 설명]

값은 석가모니, 음은 장자이다.

[선지 분석]

- ① 석가모니는 불변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② 석가모니에 따르면 불성(佛性)은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옳으나, 수양을 통해 불성을 형성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③ 장자는 타고난 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성인(聖人)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해설지 8p]

- ④ 장자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 만물의 근원인 도(道)를 따라야 할 것을 주장한다. 만물의 근원인 도를 따르는 수양 방법이 좌망(坐忘)과 심재(心齋)이다.

너의 뜻을 하나로 통일하여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라. 기라는 것은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이성적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를 좌망이라고 한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21p]

장자는 좌망과 심재의 수양을 통해 시비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인 소요의 경지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해설지 8p]

- 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교의 입장이다.

공자에게 인은 준비친소를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선악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사랑이다. 공자에게 예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고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다.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인이 이루어진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9p]

3. 서양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 ㄱ. 칸트에 따르면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칸트에 따르면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자의 덕이 아닌 선의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는 행위의 동기에 선의지가 있어야만 도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해설지 9p]

ㄷ. 칸트는 도덕 원칙을 정립할 때는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도덕 원칙을 정립할 때에는 순수실천이성에 의거한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실천이성은 이성적 활동을 하거나 준칙을 검증할 때 활동의 원칙이면서 또한 준칙들의 검증 원칙인 도덕원칙을 직접 통찰한다.

cf) 칸트에게 실천이성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법칙 내지 명령을 의지로 나타내는 인간의 능력, 특히 칸트의 용어를 말한다. 칸트는 이를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쾌감 내지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를 명령하는 실천이성,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쾌감이나 행복에 관계없이 또는, 단호하게 조건 없이 도덕적 의무를 내리는 실천이성이 있다. 칸트는 후자를 순수실천이성이라고 명명했다.

ㄷ.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자율적 의지이다.

칸트는 선의지는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자율적 의지라고 보았다. [2024학년도 EBS 윤리와 사상 수능특강 해설지 38p]

4. 삶과 죽음의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플라톤, 을은 하이데거이다.

[선지 분석]

① 죽음이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 사상은 에피쿠로스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35p]

②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소멸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육체가 아닌 영혼이 참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철인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35p]

③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근본적인 실존의 감정이 맞으나 두려움은 근본적인 실존의 감정이 아니다.

현존재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내던져진 존재인 한, 우리 실존의 근저에는 항상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불안이 대두되지 못하므로 불안을 억누른다. 죽음으로부터 도피는 결국 불안이 대두되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불안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억압될 경우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공포는 비본래적 실존방식으로서 불안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박찬국,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④ 하이데거는 죽은 자와 더불어 있음에서 고인(故人) 자신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더불어 있음이 언제나 동일한 세계 안에 서로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존재가 사망의 의미에서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저 살아 있는 것(단순한 생명체)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즉 현존재적 끝남은 생명체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한다.

현존재적 끝남은 생명체의 종말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O)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43p]

⑤ 플라톤과 하이데거 모두 죽음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5. 시민 불복종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 그 자체의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어떤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날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경우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에 대해 불복종할 수 있다.

② 롤스에게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이나 정책은 정의의 원칙 중 제 1원칙과 제 2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다. 차등의 원칙은 위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의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의 판단 여부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제 1원칙과 제 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과 정책도 존재하므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나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과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X)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9p]

③ 싱어는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불법적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합법적 수단에 의한 변경의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성공적일 것 같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적법한 통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시도될 때까지는, 그러한 수단의 사용이 바라고 있는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들을 연기할 이유밖에는 못된다. [싱어, 실천윤리학 461p]

④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동물에 대한 해악 방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민 불복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O)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9p]

⑤ 시민 불복종을 계약론적 관점에 의해 정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롤스만의 입장이다. 싱어는 롤스의 계약론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공리의 원칙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보았다.

싱어 : 시민 불복종은 계약론적 관점을 근거로 정당화해야 한다. (X)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5p]

6. 사회계약론

[제시문 설명]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선지 분석]

ㄱ.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의 주체는 인민이며, 자연 상태 말기 또는 사회상태 초기의 전쟁상태 또는 혼란 상태에 만연되고 구조화된 예측과 불평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고 태어난 자유와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다.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에 따르기로 하는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체, 곧 공적인격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가 형성되는 기반인 사회계약의 주체는 모든 성원들, 인민이므로 인민들 모두가 주권의 담당자, 곧 주권자이다.

사회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권자인 인민들은 사회계약에 의해 자기들이 탄생시켜 그 존재와 생명을 부여한 정치체, 곧 국가에 그 활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법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치체가 형성되고 결합되게 하는 이 원초적인 행위는 아직까지 그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의 문제인데, 이는 당연히 사회계약의 주체로서 국가를 탄생시킨 장본인인 주권자로서의 인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즉 입법권은 오로지 인민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로서 다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ㄴ. 루소에 따르면 입법권은 주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이지만, 집행권은 주권자가 아닌 입법자나 주권자로서의 인민 전체에게 속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집행권은 개별적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 개별적 행위는 법의 관할 안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모두 법률이 될 수 밖에 없는 주권자의 관할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공의 힘은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그 힘을 통합하여 작용케 하는 적당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함으로써,, 마치 개인에게 있어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것과 같은 공적 인격 안에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루소의 의견이다. 이러한 대리인이 바로 정부이고 이 중간적 단체의 구성원을 행정관이나 왕 또는 통치하여 행정수반이나 군주라고 부른다.

ㄷ.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라 각 성원이 자기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협약이다. 사회계약의 기반인 일반의지는 사적 이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이다. 이렇게 일반의지는 개인이 가진 특수의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르는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일반의지는 자기입법의 원리이다. 이러한 일반의지 속에서 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전체의 자유가 일치하며, 일반의지에 의해 개인의 자유는 절대화된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습에 따라 형성된 것임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그에 형성되는 공동체인 국가에 자

신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성원들이 다른 모든 성원들과 맺는 것이다. 자신을 양도하기 싫은 사람 또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회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은 모든 사람의 동의, 곧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

루소 : 사회 계약은 국가가 관습에 따라 형성된 것임을 증명하는가? (X)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98p]

7. 동양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선지 분석]

① 맹자는 선비는 생업이 없어도 향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향산(恒産)이 없어도 향심(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맹자, 맹자]

② 맹자는 인간이 능력을 갖추면 신분이나 직업을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역할 교환의 필연적 요청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cf) 맹자는 왕도정치에서 재능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분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맹자 :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서 기여한다.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7번 제시문 中]

③ 맹자는 통치자는 도덕 국가 실현을 위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恒産)되어 도덕적인 삶(恒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백성은 향산이 없으면 향심을 지닐 수 없다. 향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맹자, 맹자]

④ 맹자는 인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임금을 바꾸는 것을 정당한 일로 보았다.

제선왕이 물었다.. “탕(湯)이 결(桀)을 내쫓고 무(武)는 주(紂)를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 책에 적혀 있습니다.” “신하가 그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고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고 하며 잔적(殘賊)한 자를 일개 사내라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紂)를 배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맹자, 맹자]

⑤ 맹자는 노심자인 대인과 노력자인 소인의 역할을 구분해 사회적 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3번 해설 ref 참조)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8. 분배 정의

[제시문 설명]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선지 분석]

ㄱ.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본적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침해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024학년도 수능완성 p.115 14번 문제 해설]

ㄴ. 노직에 따르면 업적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이며 역사적인 원리이다.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며 역사적인 원리이며, 이는 정형적인 분배 상태를 명시한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99p]

ㄷ. 노직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 노직 :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O)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85p]

ㄹ. 롤스와 노직 모두 자신의 노동과 무관하게 취득한 결과물도 소유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직은 자신의 노동과 무관하게 취득하였다더라도 자발적 교환, 증여와 같은 자유로운 이동(양도)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노직은 그러한 소유권 양도를 정당화 해주는 정의의 원리를 '이전의 원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노직에 의하면 '취득의 원칙' 또는 '이전(양도)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분배 과정에서 절도, 사취, 노예화, 수탈과 같은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정의한 소유상황을 교정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소주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물의 이전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물건들을 이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가? 이 주제 아래서 우리는 자발적 교환, 증여와 사취, 그리고 한 사회에서 고정되어 있는 관습의 세부사항들을 논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복잡한 진리를 우리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93p]

롤스 또한 노동으로 인한 소유권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과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구분하면서 천부적 재능의 분포가 공동 자산이며,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소유라고 본다. 하지만 천부적 재능은 노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므로 롤스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이지 우리의 천부적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는 데에 주목하라. 마치 사회가 개인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그들의 재능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재능의 소유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만약 생겨난다 하더라도 재능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들 자신이다. 사람들의 심리적 육체적 완전성은 정의의 원칙에 속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의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 140p]

9. 예술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ㄱ. 칸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 판단이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판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행위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 : 미적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인 동시에 자율적이다. (O)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44p]

ㄴ. 칸트는 미적 체험이나 도덕적 행위는 모두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될 수 있으며 이기적인 욕구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는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ㄷ. 아름다운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만족은 인간에게 고유한 만족이기에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다.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칸트, 판단력 비판]

ㄹ. 칸트는 예술을 감성적 판단력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칸트 : 예술은 감성적 판단력이 아닌 이성적 인식 능력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는 활동인가? (X)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44p]

10. 형벌론

[제시문 설명]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 병은 루소이다.

[선지 분석]

① A : 칸트에게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다. 사법적 형벌은 오직 그 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하며, 형벌이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응보여야 한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과 유용성,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가 베카리아를 비판할 수 있는 선지로 적절하다.

베카리아 : 형벌은 사회 계약에 기초하며 그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있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② B : 칸트는 형벌 부과에 정당성 여부를 사회 계약에서 찾는다. 칸트 또한 사회계약론자이다. 칸트가 간과한 선지가 아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한 선지이다.

칸트 :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③ C와 E: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됨을 인정한다. 형벌 받는 모습을 공연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의 범죄를 억제한다.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카리아가 간과할 선지가 아니다.

베카리아 : 생명을 빼앗는 사형보다 일반인들에게 형벌을 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게 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④ 베카리아가 주장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내놓는 사람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 주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의 자유만을 내놓게 된다고 주장한다.

⑤ 칸트가 주장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형법은 정언 명령'이라고 단언하며,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가해져야 할 뿐, 범죄 예방이나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수 또한 시민적 인격은 박탈되었으나 생득적 인격은 존재한다.) 형벌 또한 어떤 다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은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1. 정보 사회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의 '나'는 인터넷상에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려는 노력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제도적 장치로만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에는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② 어떤 사람들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어떤 사람들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어떤 사람들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야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12. 문화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멜이다.

[선지 분석]

- ①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 ② 지멜에 따르면 개인은 유행을 따름으로써 집단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된다.
- ④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모방의 한 종류로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 ⑤ 지멜에 따르면 유행은 서로 다른 계층들 간에 유행의 차별성이 부각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동화되는 순간 유행은 소멸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동화되는 순간 소멸한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준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149p]

13. 과학 기술 윤리

[제시문 설명]

제시문은 동양의 순천절물(順天節物) 정신에 대한 글이다. 순천절물은 자연에 따르고 절도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적 욕망을 줄이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선지 분석]

- ① 순천절물 정신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지나친 물질적 욕망을 절제할 것을 강조하므로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 ② 순천절물 정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므로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 ③ 순천절물 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므로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 ④ 순천절물 정신에 따르면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적절한 견해가 아니다.
- ⑤ 순천절물 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고 절제의 미덕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한 견해이다.

14. 해외 원조

[제시문 설명]

잠은 롤스이고 을은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경제적으로 가난할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해외 원조의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 단, 롤스에게 개인은 원조 의무를 지니는 주체가 아니다.

② 롤스는 질서정연한 만민은 모든 비민주적 사회에 대한 원조 의무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를 갖지 않는다. 롤스에게 비민주적 사회인 무법 국가(고통받는 사회와 구분된다. 고통받는 사회는 무법국가와 다르게 공격적이지도, 팽창적이지도 않다.)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법국가는 비난받아야 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심지어 내정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롤스, 만민법]

③ 싱어는 빈곤에 처한 사회라도 그 빈곤이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이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다. 상대적 빈곤을 도울 비용으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것이 인류 전체로 볼 때 더 큰 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가 빌 게이츠 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여 상대적 빈곤에 있더라도 해도, 아프리카에 기아와 질병적 고통 등 절대빈곤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리의 원칙에 적절한 것이다.

④ 싱어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 빈곤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싱어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논변을 정리하였다. 첫째, 만약 다른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은 나쁘다. 셋째,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절대 빈곤이 있다. 싱어는 이러한 논변을 전제로 해외 원조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 절대 빈곤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p.177]

⑤ 원조를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로 본 것은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이지만, 원조가 공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싱어만의 입장이다.

15. 환경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선지 분석]

ㄱ. A: 싱어는 이익 관심을 지닌 동물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다. 여기서 내재적 가치는 테일러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와 다르다. 싱어는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경험이 동물들의 삶에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내재적 가치는 개인이 경험한 것의 가치이다. 테일러는 고유의 선이 있는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고유의 선이 있는 존재는 생명을 지닌 존재이다.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누구도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또한 다른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대우받지 않는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흙과 물, 동식물과 인간까지 포괄하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ㄴ. B: 생명 공동체 자체의 선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는 사상가는 레오폴드뿐이다. 싱어와 테일러 모두 생명 공동체 자체의 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선은 개별 유기체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는 선으로서, 고유한 선이 아니다.

토지 윤리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생명 공동체 전체의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생명체들의 존속 및 번성이라는 생명적 권리가 만약 생명 공동체 전체의 통합성, 안정성 및 아름다움의 보전과 상충되면 후자의 보전이 전자에 앞서는 것이다. [송명규, 심려적인가, 의무적인가 -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윤리']

'생명 공동체 전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물리적 개별 존재는 없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각이 물리적 실체이며 서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생물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체들의 집합이 있을 뿐이다. 생명 공동체의 선은 개별 구성원의 훌륭한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공동체의 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개별 구성원의 선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선이라는 실체는 중-개체군과 마찬가지로 개별 유기체의 삶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공동체의 선은 통계적 개념이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ㄷ. C: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무생물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레오폴드뿐이다.

토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토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ㄹ. D: 싱어와 테일러 모두 이성적 행위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 테일러는 각 객체의 생명의 유무로 도덕적 지위 능력을 결정한다.

16. 종교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선지 분석]

① 엘리아데에 따르면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으며,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존재 현현(顯現)과 성현(聖顯)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p.155]

②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세계에 있는 자연물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그 자연물을 통해 현현하는 성(聖)을 숭배하는 것이다.

③ 엘리아데는 우주를 실재적이고 성스러운 유기체로 간주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우주를 성스러움이 드러난 실재적인 유기체로 간주한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해설지 p.48]

- ④ 엘리아데에 따르면 초월적 존재인 신은 세계의 구조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聖)의 양태를 계시한다.

신들이 세계의 구조 자체 안에서 다양한 성의 양태를 계시하고 있다. 신들의 작품인 우주는 하늘의 단순한 현존 그 자체만으로 벌써 신적 초월성의 종교적 감정이 일깨워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p.159]

- ⑤ 엘리아데는 종교적 경험을 가지는 것은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보았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 '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해설지 p.49]

17. 생명 윤리

[제시문 설명]

갑은 개체 복제에 대해 반대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을은 인간의 개체뿐만 아니라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갑, 을 모두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 ② 갑, 을 모두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 및 식량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복제가 사회적 유용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③ 이 문제의 정답이다. 제시문 설명 참고
- ④ 갑, 을 모두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⑤ 갑, 을 모두 멸종 동물 복원을 위한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8. 사랑과 성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 글의 입장은 자유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의 성윤리를 제시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자유를 허용한다.

[선지 분석]

- ① 성적 관계에서 사랑을 전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이다.
- ② 자유주의는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성행위의 본질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 ④ 자유주의는 성적 자유가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19. 평화 윤리

[제시문 설명]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 ① 칸트에 따르면 평화 실현을 위해서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예비조항 3항)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 상비군의 존재로 인해 각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준비 경쟁에 도입하게 된다. 군비를 과잉 지출한 국가는 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며 결국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원인이 된다. 사람을 죽이도록 또는 죽임을 당하도록 고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비군으로 고용되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권리에 합치하는 것일 수 없다. 재화의 축적 또한 상비군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상비군은 즉각 폐지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상비군을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급히 서두를 경우 영구 평화의 목표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평화 연맹) 또한 국제 관계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칸트에 따르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는 국가에 강요할 수 없다. 각 국가는 주권을 지닌 국가로서, 자체적으로 국내의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할 때에만 자연 상태를 벗어나 평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 ④ 칸트는 하나의 국제 국가 수립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의 국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주권 국가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칸트에 따르면 타 국가의 간섭은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 나라의 내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외국이 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1. 한 나라의 내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외국이 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2. 외국의 간섭은 내부 시련과 맞서 싸우는 독립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외국의 간섭은 그 자체가 공격이며, 또한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20. 통일 윤리

[제시문 설명]

(가)는 남북한이 정치적, 법적 결단과 같이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이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나)는

비정치적 영역부터 서서히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의 입장은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보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X는 낮고, Y는 높다. 또한 (나)의 입장은 (가)의 입장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Z는 높다.

[선지 분석]

- ① 이 문제의 정답이다. 제시문 설명 참고
- ②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가)에 비해 (나)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